

십승지에 대한 의미 변화와 변산 십승지의 위치 추정*

조성욱**

Changing the Meaning of Ten-good-places and Identification the Location of Byeonsan Place*

Sungwook Cho**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십승지의 시대에 따른 의미변화와 그에 따른 자연조건을 살펴보고, 전북 부안 변산 십승지의 위치를 추정해 보았다.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십승지는 지리적으로는 동천복지형(洞天福地型)에 속하며, 사상적으로는 풍수도참류의 한국적 이상향이다. 다양한 비결류에서 제시된 십승지는 16곳이며, 같은 장소이지만 시대에 따라 피난처, 가거지, 은거지, 경승지로써 장소적 의미가 변해 왔다. 둘째, 변산 지역에서 십승지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내변산 지역 중에서 변산면 중계리의 중계계곡, 상서면 청림리의 회양 계곡 그리고 내변산 동쪽에 위치하는 상서면 감교리의 울금바위, 보안면 우동리의 굴바위 등 4군데로 좁힐 수 있다. 셋째, 비결류에 나타나는 변산 십승지의 자연조건만을 고려했을 때 4곳의 가능한 지역 중에서 상서면 감교리의 울금바위와 보안면 우동리의 굴바위가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결류에 제시된 조건과 변산 십승지가 처음 제시될 때 피장처의 의미가 강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중 상서면 감교리의 울금바위 주변 지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주요어 : 십승지, 비결류, 변산, 자연조건, 울금바위, 굴바위

Abstract : In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changes of the Ten-good-places according to the times and identification the location of Byeonsan place of Buan in Jeonbuk.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en-good-places are geographically belonging to 'Dongcheon Bokji Type' (a scenic spot where sacred man live in Taoism), and it is the Korean ideal place of 'Feng Shui' in ideology. There are 16 places presented in various secret books and the meaning of the place has changed as a refuge, a shelter, a retreat, a scenic place according to the times. Secondly, there are 4 places with Ten-good-places conditions in Byeonsan area, which are Jung-gye Valley (Byeonsan-myeon), Hoe-yang Valley (Sangseo-myeon), and Ulgum Rock (Sangseo-myeon), Gul Rock (Boan-myeon). Thirdly, considering only the natural conditions in the secret books, Ulgum Rock and Gul Rock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probable places. However, the most likely to be the place is around Ulgum Rock area because it has the conditions of a shelter in first presented.

Key Words : Ten-good-places, Secret books, Byeonsan, Natural conditions, Ulgum Rock, Gul Rock

I. 서론

한국적 이상향은 지리적으로는 청학동과 우복동과 같은 동천복지형(洞天福地型)과 울도국과 이어도와 같은 해도형(海島型)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정치영, 2005:75),

사상적으로는 도가류의 선경, 풍수도참류의 십승지, 불가류의 미타정토, 유가류의 대동사회, 근대 민족종교의 후천개벽세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원석, 2009:748).

풍수도참류에서 이상향으로 거론되는 십승지(十勝地)는 '정감록(鄭鑑錄)'을 비롯한 조선시대 후기의 비결류

*이 논문은 2020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www@jbnu.ac.kr)

(秘訣類) 저작에 등장하는 국가의 위난 또는 재앙(흉년, 전염병, 전쟁)으로부터 개인의 목숨과 집안을 보존할 수 있을 열 군데의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십승지가 회자된 것은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 이후이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십승지는 강원도 영월 정동 상류(영월군 상동읍 일대), 충북 보은 속리 난증항(충북 보은군 속리산면과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충남 공주 유구와 마곡 사이(공주시 유구읍과 사곡면 일대), 경북 봉화 춘양(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일대), 경북 풍기 차암 금계촌(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일대), 경북 예천 금당동 북쪽(예천군 용궁면 일대), 경남 합천 가야산 남쪽 만수동(합천군 가야면 일대), 전북 무주 무풍 북쪽 덕유산 아래 방음(무주군 무풍면 일대), 전북 부안 변산 동쪽 호암 아래(부안군 변산면과 상서면 일대), 전북 남원 운봉 두류산 아래 동점촌(남원시 운봉읍 일대) 등이다(최원석, 2010:144). 그러나 비결에 따라서 십승지가 약간씩 다르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다.

십승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피난처로서의 자연조건(지형조건)과 함께, 풍수지리 사상에 의한 이상향으로서의 길지(吉地), 낙토(樂土), 복지(福地), 명당(明堂), 가거지(可居志), 승지(勝地), 경승지(景勝地)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변화해 왔다. 십승지는 피난처로서의 십지(十地) 보다는 풍수지리 사상에 영향을 받은 길지 또는 명당 그리고 추상적이거나 신화적인 공간이 아닌 실제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허남진, 2017:195).

십승지는 처음에는 삼재(三災: 흉년, 전염병, 전쟁)가 들어오지 못하는 피난처, 즉 재난을 피하면서 후세를 보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특히 전쟁의 화마가 미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십승지는 국가의 중요 지역이나 주요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굳이 적군이 통과하거나 점령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어야 하며, 지형적으로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적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형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한 지역이다. 즉, 십승지는 위치적 측면과 지형적 측면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농업활동을 통하여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하천과 평지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결(秘訣)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십승지를 정리해보고, 시대에 따른 십승지에 대한 사고

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입지조건을 차이를 살펴본다. 특히 십승지로 거론되는 지역 중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비정할 수 없는 곳이 많은데, 그 중 하나인 변산 십승지의 위치를 비결류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호암, 호암혈, 변산의 동쪽, 탐라관련)과 현재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추정해 본다. 십승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비정하는 것은 십승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지역 사회에서 논의되는 십승지에 대한 다양한 논란을 지리적 측면에서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II. 십승지의 위치와 의미 변화

1. 십승지로 거론되는 장소들

십승지를 언급하고 있는 저작은 「정감록(鄭鑑錄)」, 「남사고 비결(南師古 秘訣)」, 「남격암 십승지론(南格庵 十勝地論)」, 「운기귀책(運奇龜策)」, 「징비록(懲毖錄)」, 「감결(鑑訣)」 등인데, 구체적인 십승지의 위치는 약간씩 다른 지점을 비정하고 있다. 필사본으로 전래되어 보던 이러한 비결류는 1923년 김용주에 의해 「정감록」으로 정리되었다.

「정감록」의 성립 시기는 외적의 침입에 의하여 사회 혼란이 극심하여 개인적인 자기보전이 필요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로 보는 설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는 증거로는, 첫째 조선시대에 바뀐 지명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 둘째 세조~성종 때의 분서목(焚書目)에 「정감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셋째 인조 실록에 있는 ‘초포조입계룡건도(草浦潮入鷄龍建都)’라는 문구에 「정감록」의 계룡산 천도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자연조건을 풍수지리설로 해석하고 있고, 표현기법에서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은어(隱語)·우의(寓意)·시구(詩句)·파자(破字)를 사용하여 애매한 표현이 많다는 점 등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감록”).

비결류(秘訣類)는 정감(鄭鑑)과 이십(李沁)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십(李沁) 계열과 남사고의 예언을 중심으로 하는 남사고(南師古)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양승목, 2016:110). ‘남사고 비결’의 저자로 알려진 남사고(南師古, 호는 격암 格庵, 1509-?)는 동서분당(東西分黨, 1575)과 임진왜란(1592)을 예언했는데, 1574년 옥동서원(玉洞書院, 경북 울진군)에 처음 봉향되었고, 1709년

표 1. 저작류별 십승지의 위치

저작류	십승지	계열
「장비록」	풍기, 안동 화곡, 개령 용궁, 가야, 단양 영춘, 공주 정산, 진천 목천, 봉화, 풍천, 태백	이심
「비지론」	풍기 순흥, 안동 화곡, 개령 용궁, 가야, 단양 영춘, 공주 정산, 진목, 무풍 덕유 , 예천, 태백	
「감결」 이심	풍기 예천, 안동 화곡, 개령 용궁, 가야, 단양, 공주 정산, 진목, 봉화, 운봉 두류산 , 태백	
「감결」 부록	풍기 금계촌, 화산, 보은 속리산, 운봉 행촌 , 공주 계룡산, 영월 정동, 무주 무풍 , 부안 호암 , 합천 가야산	남사고
「남격압 산수 십승보길지지」	풍기 금계촌, 화산, 보은 속리산, 운봉 두류산 , 예천 금당동, 공주 유구마곡, 영월 정동, 무주 무풍 , 부안 호암 , 가야산	
「남격압 십승지론」	풍기 금계촌, 화산, 속리산, 운봉 두류산 , 예천 금당곡, 공주 유구마곡, 영월 상동, 무주풍 , 부안 호암동 , 가야산	
「십승지」	풍기 금계촌, 화산, 보은 속리산, 운봉 두류산 , 예천 금당, 공주 유구마곡, 영월 정동, 무주풍 , 부안 호암동 , 성주 가야산	
「운기귀책」	풍기 금계촌, 화산, 보은 속리산, 운봉 두류산 , 예천 금당동, 공주 유구마곡, 영월 정동, 무주풍 , 부안 호암동 , 합천 가야산	
「요람역세」	풍기 금계촌, 화산, 보은 속리산, 운봉 , 공주 유구마곡, 소백 회인동, 태백, 무주 무풍 , 부안 , 합천 가야산	

* 양승목(2016: 127-128)을 재구성.

** 밑줄은 전라북도 소재 지역.

표 2. 이심 계열과 남사고 계열의 십승지 위치

이심 계열(「장비록」)	남사고 계열(「운기귀책」)	구분
풍기(경북 영주시 풍기읍) 안동 화곡(경북 안동시 와룡면) 개령 용궁(경북 예천군 용궁면) 가야(경남 합천군 가야면)	풍기 금계촌(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화산(경북 안동시 와룡면) 예천 금당동(경북 예천군 용궁면) 합천 가야산(경남 합천군 가야면)	공통 지역
단양 영춘(충북 단양군 영춘면) 공주 정산(충남 청양군 정산면) 태백(강원도 태백시) 진천 목천(충남 천안시 목천읍) 봉화(경북 봉화군 춘양면) 풍천(경북 안동시 풍천면)	보은 속리산(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공주 유구 마곡(충남 공주시 유구읍) 영월 정동(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운봉 두류산(전북 남원시 운봉읍) 무주 무풍(전북 무주군 무풍면) 부안 호암동(전북 부안군 변산면)	다른 지역

울진의 향사(鄉祠)에 배향된 것으로 보면, 1500년대 중반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보인다. 현재는 남사고의 출생지로 추정되는 경북 울진군에 격암 남사고 유적지(근남면 수곡리)가 정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비결류에서 중요 인물인 남사고는 십승지가 일반인들에게 회자되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전에 생존했던 인물로, 십승지에 대한 예언은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각 계열의 저작에서는 각각 10군데씩의 십승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저작과 계열에 따라 지목하고 있는 십승

지에는 차이가 있다. 두 계열의 저작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곳은 영주 풍기의 금계촌, 안동의 화산(화곡), 예천의 용궁(금당), 합천의 가야산 등 4곳 이다(표 1, 표 2). 또한 이심 계열의 십승지 보다 남사고 계열의 십승지가 위치적으로 더 남하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산 지역은 이심 계열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나, 남사고 계열에서는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심 계열의 십승지는 가야, 무풍, 운봉의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청도와 그 이북지역이다. 이심 계열인

표 3. 현재 행정구역에 의한 십승지 지역 분류(총 16곳)

행정구역별	이십 계열(「징비록」)	남사고 계열(「운기귀책」)
강원도	태백시(태백)	영월군(정동)
충청북도	단양군(영춘)	보은군(속리산)
경상북도	영주시(풍기), 안동시(화곡), 안동시(풍천), 예천군(용궁), 봉화군(봉화)	영주시(풍기), 안동시(화산), 예천군(용궁),
충청남도	청양군(정산), 천안시(목천)	공주시(유구),
전라북도	-	남원시(운봉), 무주군(무풍), 부안군(변산)
경상남도	합천군(가야)	합천군(가야)

「징비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십승지는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강원도 1개, 경북 5개, 충북 1개, 충남 2개, 경남 1개이다. 이에 비하여 남사고 계열에서는 충청도 이남 지역의 십승지로 4곳(가야, 무풍, 운봉, 변산)을 지목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십승지의 위치가 남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사고 계열인 「운기귀책」에 제시된 십승지는 강원도 1개, 경북 3개, 충북 1개, 충남 1개, 경남 1개, 전북 3개로, 경북에서 2개(봉화, 안동 풍천)와 충남에서 1개(공주 정산)가 줄었고, 그 대신 전북에서 3곳(무풍, 운봉, 변산)이 추가되었다(표 3).

이 중 전라북도 지역의 십승지의 경우, 이십 계열에서는 무풍(무주군, 「비지론」)과 운봉(남원시, 「감결이십」) 두 곳이 각각 나타나지만, 남사고 계열에서는 변산이 추가되어 3곳(무풍, 운봉, 변산)이 일관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십승지의 위치는 저작과 계열에 따라 다르게 지목되고 있으며, 이십 계열에 비해서 남사고 계열이 더 넓은 지역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 10곳씩 총 16곳이 지목되고 있는데, 두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곳은 4곳이다. 이중 경북 북부와 소백산맥의 북부 지역이 9곳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7곳이다(충남 3, 전북 3, 경남 1).

2. 십승지에 대한 의미 변화와 입지 조건

장소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물질적 토대이면서, 끊임없이 장소화·탈장소화 과정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의미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역동적인 장이다(권선정, 2018:926). 속리산 우복동(牛腹洞)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우복동이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동천(洞天), 복지(福地), 구곡(九曲) 등 동양적 이상향으로 인식되었

다(권선정, 2018). 즉, 도교, 유교, 신선사상 등을 토대로 당시에 추구했던 도학적 정신세계와 자연관이 투영된 이상적인 장소로서 의미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의미 구성의 주체와 문화적 코드가 바뀌어 풍수적 길지(吉地), 낙토(樂土), 명당(明堂) 등으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었다. 즉, 같은 장소이지만 의미구성의 주체에 따라서 장소의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또한 사회집단에 의한 공간적 변이가 나타난 사례로 청학동은 설화적인 이상향의 공간이었던 선경지에서, 조선 후기 민간인들이 찾아 거주하는 주거촌(勝地村), 그리고 현대의 경남 하동 목계리 청학동과 같이 대중문화의 관광지로 장소성이 변화했다(최원석, 2009:754).

청학동과 십승지는 역사적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비결류에서 청학동은 십승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후 청학동과 십승지의 장소 이미지가 상호결합하여 십승지로서 청학동이라는 장소 정체성이 형성되었다(최원석, 2014:431).

십승지 역시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대한 의미가 변해왔는데, 십승지에 대한 의미 부여는 처음에는 피난처(避難處 또는 피장처(彼藏處))로 시작되었으나(「정감록」), 이 후에는 가거지(可居地)로 변화되었으며(「택리지(擇里志)」), 이 후에는 선비들의 은거지(隱居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승지(景勝地)로 변화했다(양승목, 2016:125). 여기에서는 각각의 의미변화에 따른 지리적 입지조건적 차이를 살펴본다.

1) 피난처로서의 십승지

처음 십승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을 겪으면서 국가의 위난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땅을 찾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10군데의 승지(勝地)라는 의미 보다는 피난처의 조건을 잘 갖춘 곳 10군데를 의미하는 십지(十地)라는 용어가 더 적합했을 것이다(양승목, 2016:107).

국가의 전쟁 위기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전할 수 있는 피난처 또는 피장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외적의 접근이 어려운 지형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특히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갈라지는 지역은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적군이 굳이 해당 지역을 점령 또는 통과해야 할 필요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교통로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는 측면에서도 적합하다. 조선의 상황에서 외국의 침입이 예상되는 주요 노선은 남쪽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경우 부산(동래)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서울로 진격하는 노선과 북쪽 청나라의 침략이 있을 경우 압록강을 넘어 평양, 서울로 진격하는 노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요 노선에서 제외되는 곳은 태백산맥이나 통행로를 제외한 소백산맥 지역과 바다의 섬지역이 해당된다.

즉, 피난처로서의 십승지의 입지조건은 지형적 조건으로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외적의 접근이 어려우면서, 위치적으로는 국가의 주요 교통로나 침략로에서 벗어난 지역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은 경북 북부 지역과 소백산맥을 따라 지리산까지의 산지지역이다. 거론되고 있는 십승지 역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강원도 남부와 경북 북부지역, 소백산맥을 따라 단양, 속리산, 무풍, 운봉, 가야산 등지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거론되고 있는 십승지는 이러한 피난처로서의 위치에 적합한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의 재난적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초기의 십승지 조건을 갖춘 지역들이다.

2) 가거지로서의 십승지

초기 피난처로서 거론되던 십승지는 이 후 사람이 살 만한 가거지(可居地)로 의미가 변하면서, 그에 따라 요구되는 자연조건도 달라진다. 즉,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지형조건과 국가의 주요 교통로에서 벗어난 위치한 피난처로서의 입지조건과 함께, 그 속에서 사람이 계속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농업 활동이 가능한 하천과 평지가 피난처로서 생각하던 때보다는 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다. 농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

경지는 피난처에서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다른 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했다면, 가거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입지조건을 대표하는 것이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고려한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1751)이다. 이 중 피장처로서는 산수(山水)와 지리(地理)가 가장 중요한 입지요소가 되지만, 가거지에서는 생리(生利)와 인심(人心)이 더 중요한 입지요소가 된다. 즉, 자연조건 중심에서 경제와 마을이 존재하는 인문적 환경의 중요성이 더 늘어난 것이다.

가거지로서 십승지의 입지조건은 피장처로서의 자연조건과 함께(험준한 산지, 주요교통로 외곽), 경제활동인 농업활동이 가능한 평탄지와 하천이 중요한 자연조건이 된다. 기존의 피난처에서도 험준한 산지로 둘러싸여 있지만, 내부에 하천이 있고 이 하천으로 인하여 사면 중 한 곳은 개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택리지에서 제시한 조건은 동구가 닫힌 듯 좁고, 안으로 들어 넓게 펼쳐진 지역이다. 가거지로서의 십승지는 농업과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 풍부한 하천과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평탄한 지형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조건으로는 분지 지형이나 산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하천의 범람원이 발달한 지역이 가장 적합한 자연 조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 규모는 피난처는 한 집안이 생활 가능한 정도의 작은 규모에서도 가능했다면, 가거지로서의 십승지는 마을을 이룰 정도로 더 넓은 지역을 의미한다.

3) 은거지로서의 십승지

조선 후기 당쟁에 따른 선비들의 은거지를 찾는 경향에서 은거가 가능한 자연 조건과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생산 공간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했다. 은거지로서의 십승지는 피난처와 가거지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다. 당시 은거지는 당쟁의 화를 피하기 위한 선비들 뿐 아니라, 종교탄압을 피하기 위한 천주교도들 역시 은거지를 찾아 이주했다. 은거지로서의 십승지는 외부와 고립된 지형조건이라는 측면에서 피난처로서의 조건과 일치하고, 장기적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은거지는 피난처의 조건과 가거지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난처와 은거지의 중요한 차이는 피난처가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보전지역이라면, 은거지는 내부 행정관청으로부터의 보전지역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가거지의 조건보다는 피난처에 가까운 입지조건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필요치 않은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립된 지역일수록 좋다는 점에서 가거지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외딴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한양)과의 거리와 함께 지방행정 관아로부터 떨어진 지역, 사람들과의 왕래가 제한되는 외딴 지역, 주요 교통로에서 떨어진 지역이 적합한 입지조건이 된다. 즉, 은거지로서의 십승지는 가거지 보다는 피난처에 더 가까운 자연조건이다.

4) 경승지로서의 십승지

이 후 십승지는 경치가 아름다운 자연 조건과 풍수지리 사상에 적합한 경승지로서의 의미로 변화했다. 즉, 명승과 비경이 일시적인 방문이 아닌 삶을 위한 이주 공간으로 논의된 것이다(양승목, 2016:126). 경승지로의 의미 변화는 평탄한 땅이 있는 가거지와 함께 지형적 험난함에 의한 경승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 상류 지역의 분지 지형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하천의 상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경승지는 가거지와 조건을 동시에 갖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거지와 가까운 곳(10리 내)에 경승지가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춘 지역이 적합한 지역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박한 곳이어서 산수에만 취해서 삶을 영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름진 땅과 넓은 들에 집을 짓고 살면서, 10리 밖 또는 반나절 길 정도의 거리에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있어 생각이 날 때마다 시름을 풀 곳을 선호하였다(조성욱, 2007:535). 이런 의미에서 경승지로서의 십승지는 피난처의 십승지와 가거지로서의 십승지를 결합한 형태로, 의미하는 지역 규모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제 상황에서 경승지와 가거지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승지로서의 십승지는 피난처나 은거지 그리고 가거지 보다는 더 큰 지역규모 또는 지역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상의 4가지 지역에 대한 의미변화에서 각각의 의미에 적합한 지역의 범위(규모)는 경승지로서의 십승지가 가장 크고, 다음이 가거지, 그리고 은거지 그 다음이 피난처의 순으로 볼 수 있다. 즉, 피난처와 은거지는 피난이라는 측면에서 고립된 지형조건이라는 점에서 일치하

는 측면이 있고, 가거지와 경승지는 일상적인 삶과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의미와 입지조건을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변화에 따라 필요한 자연 조건에서 차이가 있고, 지역의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승지로 지목된 지역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즉, 십승지 자체의 지역변화가 아니라, 시기 별 사고 변화에 따라서 의미하는 지역범위의 차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조건을 지닌 지역이라 하더라도 피난처와 은거지는 지역 내부에서도 산지 쪽의 특정 지점이나 좁은 지역을 의미할 수 있지만, 가거지는 지역 내에서도 평지 쪽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생산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십승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인 한 지점으로 특정하지 않고, 비교적 넓은 지역범위를 지목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십승지에 대한 의미 변화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십승지 자체의 위치 변화로는 표현되지 않았다. 즉, 동일한 지역 내에서의 활용상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십승지가 4가지의 모든 의미 변화에 적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같은 지역을 시대상황과 필요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달리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난처와 은거지로서의 입지조건, 가거지로서의 입지조건 그리고 경승지로서의 입지조건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십승지로 지목된 장소에서 변화가 없었다면, 각 시기에 따른 의미 지역의 지역 범위와 핵심 지역에서는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III. 전북 부안 변산 십승지의 위치 추정

전북 지역에서 십승지로 거론되는 3곳 중에서 '무풍 십승지'는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사동마을과 석항마을)로 위치에 대한 논의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운봉 십승지'는 비결류에서 두류산, 동점촌(銅店村), 행촌 그리고 지역범위가 백리라는 광범위한 지역을 기술하고 있어서 지점이나 지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변산 십승지'는 비결류에서 호암(壺巖), 변산 동쪽, 굴 등의 지형 조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역시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표 4).

표 4. 비결류에 나타나는 전북 십승지 3곳의 제시 조건

조건	변산	무풍	운봉
관련지명	변산, 탐라	방음, 덕유산, 무봉산, 방상동, 부호동	행촌, 동점촌
지형조건	호암(혈)	덕유산	두륜산
위치조건	변산 동쪽	북동	백리 내, 운봉하류 동점

출처 : 양승목, 2016:127-1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십승지”.

비결류에서 십승지의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특징적인 지형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지명을 제시하는 경우, 주변의 유명한 산명을 제시하는 경우, 지역의 범위를 제시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이십 계열에서 무풍과 운봉이 한 번씩이라도 등장하는데 비하여 변산은 이십 계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남사고 계열에 나타나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변산이라는 지명의 변화와 의미하는 지역의 범위, 변산반도의 지형조건을 살펴본 후, 비결류에 제시된 변산 십승지의 지형조건을 중심으로 그 위치를 추정해 본다.

1. 변산의 지명 변화와 지역 범위

전라북도 부안군의 군명인 부안(扶安)은 조선시대 때에 등장한 지명으로, 고려시대 이 지역의 행정구역이었던 북쪽의 부령현과 남쪽의 보안현이 합쳐지면서 한자씩을 취하여 부안이라는 지명이 탄생하게 되었다(표 5). 북부의 부령현(扶寧縣)은 백제시대에는 개화현,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시기부터 고려시대까지 부령현으로 불리어 왔으며, 조선시대에 부안현이 되었고, 1943년 과거 부령현의 치소였던 부령면이 부안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남부의 보안현(保安縣)은 백제시대에는 혼양매현,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는 희안현, 고려시대에는 보안현으로 변화했으며, 조선시대에는 부령현과 통합되어 부안현이 되었고, 과거 보안현의 치소는 현재 보안면 남포리 고현 마을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부안군 내에서 우내산면(현재 변산면 지역: 지서, 도청, 격포, 마포, 운산, 대항, 중계)과 좌내산면(현재 진서면 지역: 진서, 석포, 운호)을 통합하여 산내면이라 했다. 이후 1963년에 과거 좌산내면 지역에 진서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3년에 산내면에서 분리하여 진서면이 되었다. 산내면의 나머지 지역은 1987년 변산면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즉, 1914년 이전 우내산면 지역은 변산면으로 좌내산면 지역은 진서면이 되었다. 그리고 1988년 변산국립공원(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하서면, 보안면의 일부 지역)이 지정되었다(그림 1).

이와 같이 변산(邊山)이라는 지명이 행정구역명(부안군 변산면)으로 등장한 것은 1987년 산내면이 변산면으로 바뀌면서이지만, 백제 땅에 원래 변산(卞山)이 있으므로 변한(卞韓)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삼국유사)이 있고, 변산은 호남 5대 명산의 하나로 능가산(楞伽山)·영주산(瀛洲山)·봉래산(蓬萊山)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다. 또한 산이 겹겹이 쌓여 높고 깎아지른 듯하며 바위와 골이 그윽하다는 기록(신증동국여지승람), 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있으며 십승지(十勝地)의 하나로 꼽고 있다는 기록(택리지)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변산의 목재인 변재(邊材)가 기록(세종실록)되어 있고, 박지원의 허생전에는 변산의 군도(群盜)가 등장하기도 한다(강성연 등, 1991; 이종범, 2013; 김경미, 2018).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에 위치하는 월명암(月明庵)에는 부설거사(浮雪居士)의 재가성도담(在家成道談)인 ‘부

표 5. 부안군의 행정구역과 지명 변화

위치	백제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중심지)	조선	1914년	2014년
북부	개화현	부령현	부령현 (부안 부안읍)	부안현 (부안읍)	부안군	부안군
남부	혼양매현	희안현	보안현 (보안면 남포리 고현)			

출처 : 유재영, 1993: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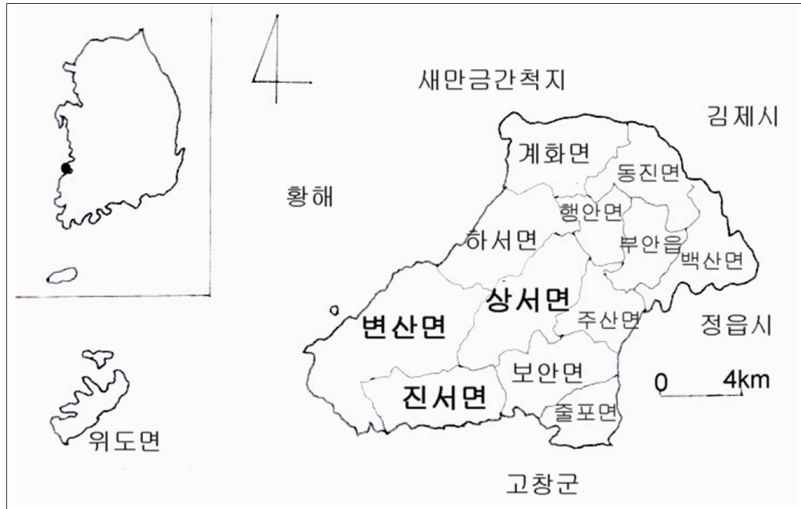


그림 1. 부안군의 행정구역과 변산면

설전(浮雪傳)(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40호)이 전해져 온다(한국자연공원협회, 1997; 향토문화전자대전, “부설 거사와 묘화부인”). 650년(백제 의자왕) 고현마을(현재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고현마을)에 불교신자인 구무원(具無冤)의 딸인 묘화(명어리)가 살았는데, 묘화가 20세 되던 해에 수도자인 부설, 영희, 영조의 3인이 이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이후 두 스님은 오대산으로 떠나고, 부설은 묘화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부설거사와 묘화 부인은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등운(登雲), 딸은 월명(月明)이었다. 부설은 서해 백강변에 초려를 지어 망해(望海)라고 하고 15년을 수련하여 견성(見性)하였고(현재 김제시 진봉면 망해사), 부안 변산에 있는 등운암과 월명암 그리고 김제의 망해사는 부설거사 전설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변산이라는 지명 자체는 삼국시대인 백제 시대 때부터 존재했었던 지명으로 보인다. 부안군 내에서 변산이라는 지명이 변산반도, 변산해수욕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행정구역명으로 등장한 것은 1987년 변산면이 면명으로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변산이라는 지명이 마을명이나 산명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특히 변산반도의 산 중에서 특정 봉우리를 변산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고, 변산반도의 산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변산반도의 지역 범위는 부안군(1읍 12면) 내에서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하서면 보안면의 5개면 지역에 걸

쳐있다. 동부는 부안군 상서면과 보안면, 서부는 변산면, 남부는 진서면, 북부는 하서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변산반도 중에서 내륙의 산지지역을 내변산, 서쪽의 해안 지역을 외변산으로 구분하는데, 행정구역으로 내변산 지역은 상서면의 청림리와 변산면의 중계리 지역에 해당하고, 외변산 지역은 변산면의 7개리 중 내륙의 중계리를 제외하고 서부 해안 지역인 대항리, 지서리, 운산리, 마포리, 격포리, 도청리 등 6개리가 해당된다(고의장, 2003;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2019). 변산반도의 주변 해안에는 격포진(현재 격포항), 검포진(현재 곰소항), 군산진(현재 선유도), 위도진(현재 위도면 진리항) 등이 위치해 있었다.

어원적으로 변산(邊山)은 특정한 봉우리를 의미하지 않고, 가장자리와 끝을 의미하는 ‘변(邊)’자에 ‘산(山)’자가 결합되어, 바다 쪽으로 빼죽 나온 산이 많은 반도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록에 따라서 ‘변’자는 한자로 ‘邊’ 또는 ‘卞’자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2. 변산반도의 지형 조건과 십승지

변산반도는 내변산과 외변산으로 구분되는데, 변산은 봉래산(蓬萊山)으로도 불리웠으며, 고창의 방장산(方丈山)과 정읍 고부의 두승산(斗升山)과 함께 삼신산(三神山)으로 불리웠으나, 변산이라는 지명은 특정 산 이름 보다는 변산반도에 있는 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2. 변산반도의 주요 지점

* ▶ 는 하천의 흐름 방향 표시.

변산반도에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백천을 중심으로 의상봉(또는 기상봉, 508.6m), 북옥녀봉(354.7m), 상여봉(395.0m), 세봉(433.0m), 신선봉(488.2m), 망포대(494.1m), 낙조대(447.0m), 쌍선봉(460.7m) 등의 산지가 둘러싸여 있으며, 내변산을 흐르는 백천 이외의 하천들은 모두 산지 외부로 각각 흘러간다(하서면, 상서면, 보안면, 진서면, 변산면). 내변산 지역에서 계곡은 주로 남쪽 분수계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인 직소천(중계 계곡)과 가마소천(회양 계곡) 유역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내변산과 외부 지역을 연결하는 고개로는 우슬치(120m), 학치(140m), 사창재(220m), 바드재(180m), 재백이 고개(160m), 말재(86m), 남녀치(100m) 등이 있다.

분수계 내부로 산지의 물이 모이는 내변산 지역은 모든 물이 백천으로 모여들어 물이 풍부한데 비하여 농경지는 적다. 이에 비하여 내변산의 외부 지역은 농경지로 활용되는 면적이 넓은데 비하여 큰 하천이 형성되지 못하여 물이 부족하다. 이러한 물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변산의 물을 저장하여 분수계를 넘어 외부 지역으로 이동시켜(유역변경) 활용하는 방안이 고안되었다. 먼저 이 지역에서 가장 물이 풍부한 백천의 하류에 건설된 부안댐은 1996년에 완공되었으며, 이 물은 부안군과 고창군의 식수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백천의 지류인 거석천의 상류에는 청림제를 축조하고(2007년) 분수계를 통과하는 터널을 뚫어 남부의 우동제(1957년)로

유역을 변경하여 남부 지역의 농경지에 활용하는 '성계 지구 농업용수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해발고도가 높은 백천 유역 내부에(해발고도 100m) 댐을 축조하고 2개의 지하 도수로를 뚫어(길이 각각 1,000m, 600m) 남쪽의 우동제(해발고도 40m)로 물을 유역변경 시키는 사업으로 2008년에 완공되었다. 이것은 해발고도 차이를 이용하여 물이 풍부한 백천 유역 내부(내변산)의 물을 남부의 농경지 지역으로 끌어들이어 이용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의 지형조건을 잘 활용한 사업이다.

내변산에는 회양 계곡(외룡소 및 가마소 계곡)과 중계 계곡(대소폭포에서 부안댐)이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백천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거석천, 회양 계곡, 중계 계곡의 물을 모두 합수하면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마지막에는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새만금 지구 내부로 흘러간다. 내변산 지역에는 상서면 청림리(청림마을 부근)와 변산면 중계리(사자동마을 부근)에 하천변을 따라 평탄지가 일부 존재한다. 그리고 회양 계곡과 중계 계곡은 깊은 계곡을 이루어 피난처로서는 적합하지만, 농경지는 아주 협소하다(그림 2).

400~500m 높이의 산지로 둘러싸인 내변산 지역은 외부와 단절된 하나의 분지를 이루며, 하천이 흘러나가는 방향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북쪽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폐쇄성이 우수하여 피난처로서 적합한 지역이다. 그리고 내변산 지역 내에서도 회양 계곡과 중계 계

곡은 가거지로서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피난처와 은거지 그리고 경승지로서는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내변산 분수계의 외부지역이지만 산지에 연결되어 피난처로 적합한 지역은 남쪽 진서면의 석포리(내소사 지역), 보안면의 우동리(굴바위, 선계폭포), 상서면의 감교리(개암사, 울금바위, 우금산성), 상서면 통정리(구암리 지석묘, 우슬재) 등이 있다.

3. 변산 십승지의 위치 추정

1) 비결류에 나타나는 십승지 변산의 지형 특성

비결류에 나타나는 십승지로서의 변산의 특성은 ‘호암(壺岩, 병바위) 아래, ‘호암혈(穴), ‘변산의 동쪽, ‘탐라관련 내용’이다(표 6, 표 7). 변산반도의 동쪽은 부안군 상서면과 보안면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에서 큰 바위(호암)와 굴(호암혈)이 있는 곳은 북쪽 상서면 감교리의 울금바위(원효굴)와 남쪽 보안면 우동리의 굴바위가 있다. 이 바위들은 외부에서 보면 병바위 모습을 하고 있고, 내부에는 굴이 형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변산반도에서 피장처로서 거론할 수 있는 지형조건을 갖춘 곳은 400~500m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변산 내부 지역과, 내변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산지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내변산 지역 내에서는 상서면

청림리 청림마을과 회양 계곡, 변산면 중계리의 중계 계곡을 들 수 있다. 이 중 청림마을은 백천과 거석천이 합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어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변산반도 중에서 특히 내변산 지역은 「허생전」(박지원, 1780년대 추정)에 등장하는 군도(群盜)들의 활동 공간이었고(정성훈, 2015; 유귀영, 2017), 조선시대 변산의 목재 이야기가 등장하고(「세종실록」), 전남의 월출산과 전북의 변산에 유민들이 모여든다는 기록이 있으며(「영조실록」), 장각이야기 등이 전해져 와서, 도둑, 유민, 군도, 삼림지역 등으로 외지고 행정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유민의 피난처, 은거지로서 안성맞춤인 지역이다.

그리고 비결류에 나타나는 지형조건인 호암(壺岩)과 위치적 특성인 변산의 동쪽을 고려하면, 보안면 우동리의 굴바위와 상서면 감교리의 울금바위(또는 우금바위)가 있다. 두 곳 모두 변산의 동쪽에 위치하는 점, 외부에서 볼 때 병바위 형태를 보이는 점, 내부에는 굴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울금바위는 북쪽의 동진강 수계인데 비하여, 남쪽의 굴바위는 남부의 곰소만 수계라는 점에서 수계 상에서는 차이가 있다. 보안면과 상서면의 경계는 호벌치로 분수계를 이룬다.

표 6. 십승지 ‘변산’의 지형 및 위치 특성

비결류	변산의 위치 특성	계열
「감결」 부록	변산: 호암 아래	남사고
「남격암 산수십승보길지지」	변산: 호암 아래 변산 동쪽	
「남격암 십승지론」	변산: 호동 아래 변산 동쪽, 탐라 관련	
「십승지」	변산: 부안 호암(壺岩) 아래 변산의 동쪽, 탐라관련	
「운기귀책」	변산: 호암혈 아래, 탐라가 다른 나라가 되면 불가하다	
「요람역세」	변산: 부안 서암 아래	

출처 : 김용주, 1923.

* 양승목(2016:127-128)을 재구성.

표 7. ‘남격암 산수십승 보길지지’에서 설명하는 변산

扶安壺岩之下 邊山之東 藏身最奇 然耽羅作異地則不可 此地在邊山之東 世難尋之 無上邊山之東

(부안호암지하 변산지동 장신최기 연탐라작이지즉불가 차지재변산지동 세난심지 무상변산지동)

해설: 부안 호암 아래, 변산의 동쪽, 몸을 숨기기에 가장 적합, 탐라가 다른 나라의 땅이 되면 불가능, 이 땅은 변산의 동쪽, 세상이 어지러워 찾는다면, 변산 동쪽 위로 가면 안된다.

출처 : 백운항, 1986:174.



그림 3. 상서면 감교리 울금바위(좌)와 원효굴(우)

출처 : 2018년 8월 저자 촬영.



그림 4. 보안면 우동리 굴바위 내부(좌)와 주변 경관(우)

출처 : 2018년 8월 저자 촬영.

상서면 감교리에 위치하는 울금바위는 백제부흥운동기(660~663년)에 승려 도침과 왕자 풍에 의해서 백제부흥운동이 있었던 주류산성(우금산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그림 3). 울금바위에는 원효굴이라는 굴이 있으며, 울금바위 아래에는 개암사라는 사찰이 있고, 서쪽은 의상봉 및 내변산과 연결된다. 그리고 감교리에는 동쪽 선상지 지형에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가까운 상서면 고잔리의 고잔마을과 목포마을을 통해 동진강의 수운이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3).

그리고 남쪽의 보안면 우동리에 위치하는 굴바위는 아래에 사찰(대불사)이 있고, 동쪽에는 우동제(1957년 축조)와 허균(1569-1618)과 이성계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선계폭포가 있으며, 남쪽에는 반계 유형원(1622-1673)이 기거했던 우동마을이 있다. 우동리는 북쪽의 옥

녀봉-상여봉 산지에 바드재를 통해서 내변산과 연결되고, 선계폭포가 있으며, 서쪽 변산 쪽으로는 옥녀봉-용각봉-매봉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산지사이로 내변산의 회양 계곡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굴바위의 동남쪽에는 우동마을의 농경지가 있으며, 동쪽과 남쪽은 낮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남동쪽만 바다로 뚫려 있는(현재는 간척사업으로 육지화됨) 지역이다(그림 4).

우동리는 조선시대 실학자인 반계 유형원(1622-1673)이 기거하면서 반계수록을 저작한 곳이다. 한양에서 태어난 유형원은 2세 때에 유몽인의 옥사에 연관되어 부친 유희이 사망하고, 1636년 병자호란 때(15세)에는 강원도 원주로 피난했다가, 1653년(32세)에 선대의 사패지인 이곳 우반동으로 이주하여 20년간 은거하였다(전경목, 2015; 김승대, 2018). 반계 유형원의 행적으로 보아서는

이곳 우반동(우동리)은 피난처라기보다는 은거지 또는 가거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 심산지 '변산'의 위치 추정

변산반도에서 피장치의 조건을 갖춘 지역은 지역을 넓게 하면 내변산 지역이고, 내변산 지역 내에서는 회양 계곡과 중계 계곡이다. 그리고 내변산 지역 내에서도 가거지로서의 조건이 좋은 곳은 거석천과 백천이 만나면서 평탄지가 형성된 상서면 청림리 지역(청림마을, 노적마을)이다.

변산반도 내부의 내변산 지역이 높은 산지로 둘러싸인 피장처로서 조건을 갖춘 곳이라면, 보안면 우동리(굴바위)와 상서면 감교리(울금바위)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나, 부근에 농경지가 분포하고, 바다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 피장처와 함께 가거지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결류에서는 변산의 동쪽, 호암 아래라는 조건과 함께, 특이한 점은 탐라가 다른 나라가 되면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바다와의 연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동리의 경우 현재는 간척사업에 의해서 육지화가 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바다와 연결된 지역이었으며(곰소만, 고잔), 감교리 역시 과거에는 목포, 고잔(동진강) 등의 지명이 있어서 바다와 연결되었던 지역으로 보인다.

비결류에서는 일관되게 변산 심산지의 조건으로 호암(壺岩, 병바위) 아래, 변산 동쪽, 탐라관련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비결류의 조건에 맞는 곳은 내변산 지역이 아니라 내변산 분수계 외부의 동쪽에 위치하는 울금바위와 굴바위 지역인데, 탐라관련 내용도 과거 이곳이 바닷길과 연결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비결류에서 제시한 조건이 맞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지역 모두 변산반도 서쪽의 바다 쪽이 아니라, 동쪽의 육지 쪽에 위치해 있으며, 변산반도 내변산의 분수계 동부에 해당하는 지

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변산반도의 지형조건을 고려하면 이 지역에서 심산지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역은 변산면 중계리의 중계 계곡(봉래구곡), 상서면 청림리의 회양 계곡(가마소 계곡과 와룡소 계곡), 상서면 감교리의 울금바위, 보안면 우동리의 굴바위 지역 등 4곳이다.

이 지역들을 심산지에 대한 개념 변화에 따라 각각의 적합성을 살펴보면(표 8, 그림 5), 첫째, 변산면 중계리 중계 계곡은 내변산 내부 지역이어서 피장처와 은신처로서는 가장 적합한 지형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농경지가 가능한 가거지로서는 계곡의 입구에 위치하는 중계마을(사자동) 지역이 적합하며, 이곳의 경승지로는 봉래구곡(대소폭포, 직소폭포, 분옥담)이 있고, 실상사와 월명암이 있다. 중계 계곡 지역은 남여치를 통해서 서부의 외변산 지역으로 연결되며, 재백이 고개를 통해서 남부의 내소사와도 연결된다.

둘째, 상서면 청림리는 내변산 내부 지역이어서 피난처로서 적합한 지형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회양 계곡은 피난처와 은신처로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은 고립되어 있지만, 북쪽은 바드재로 우동리와 연결되고, 동쪽의 우슬재로 통정리와 연결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교통조건이 좋은 편이다. 지역 내에서 농경지가 가능한 가거지로서는 거석천과 백천 주변에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는 청림마을과 노적마을 부근이 적합하다. 이곳의 경승지는 회양 계곡의 와룡소 계곡(와룡폭포)과 가마소 계곡(가마소 폭포)이 있다.

셋째, 보안면 우동리의 굴바위 지역은 내변산 동쪽 사면에 위치해 있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피난처로서 가능하며, 동쪽에 하천과 평지가 넓게 분포하여 가거지로서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남동쪽으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교통 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은거지로서는 북쪽의 선계폭포 안쪽과 서쪽

표 8. 개념 변화에 따른 적합지 분류

구분	변산면 중계리	상서면 청림리	보안면 우동리	상서면 감교리
피장처*	상	상	중	중
가거지	중계마을(사자동)	청림마을	우동마을	개암마을(감교리)
은신처	봉래구곡	와룡소 계곡 가마소 계곡	선계폭포 안쪽 굴바위	울금바위 원효굴
경승지	봉래구곡	와룡소 계곡 가마소 계곡	선계폭포 와룡소 계곡	어수대 의상봉

* 상은 '아주 적합', 중은 '적합'을 의미.



그림 5. 변산 십승지 가능 지역(중계계곡, 회양계곡, 울금바위, 굴바위)

의 굴바위 지역이 적합하며, 경승지 역시 내변산이 10리 내(회양 계곡)에 위치해 있다.

넷째, 상서면 감교리 울금바위 지역은 내변산의 동쪽 사면에 위치해 있어서 피난처로 적합하나 조건이 내변산 지역 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동쪽으로 트여있는 선상지 지역에 농경지가 가능한 평탄지는 존재하나 동쪽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피난처와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은신처로서는 울금바위가 적합하며, 경승지는 내변산이 10리 내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서쪽에 산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트여 있다는 점에서 내변산 지역에 비하여 피난처와 은거지로서의 적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상 4개 지역 중에서 조선시대 중기 이후 십승지의 개념 변화를 고려했을 때, 피장처와 은신처로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은 중계 계곡(중계리)과 회양 계곡(청림리)이고, 가거지로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은 굴바위(우동리 우동마을)와 내변산의 청림리(청림마을과 노적마을)이다. 그리고 주거지에서 10리 내에 경승지가 위치하는 조건은 모두 만족한다. 변산반도에서 가장 우수한 경승지는 중계리의 중계 계곡(봉래구곡)이다.

이 4개 지역 모두 변산이라고 칭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십승지로서 변산으로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적 지형 조건과 함께, 개인 또는 집안 대가족의 거주 측면, 역사적인 관련성 측면을 고려할 때, 각각의 최적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선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십승지가 의미하는 영역의 공간적 범위 문제(지역규모 문제)와 풍수지리적 명당(음택풍수), 도참사상, 민중들의 피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결류에서 십승지의 구체적인 지형조건(호암 등) 등을 거론하면서 지역을 지정한 것을 보면 당시 실제 지역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비결류에서 적시하는 변산 십승지의 지형과 위치 조건에 맞는 곳은 상서면 감교리의 울금바위와 보안면 우동리의 굴바위이며, 비결류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내변산에 해당하는 중계리의 중계 계곡과 청림리의 회양 계곡이 십승지로서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특히 초기 십승지의 고려 조건이었던 피난처로서의 조건에서는 내변산 지역(중계 계곡과 회양 계곡)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민과 군도의 소굴로 묘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변산 지역의 지역 안정성, 거주 적합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비결류에서 제시하는 십승지 변산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변산 동쪽 호암이 있는 지역으로 북쪽의 울금바위와 남쪽의 굴바위가 있는데, 십승지 초기의 특성인 피난처로서의 조건은 울금바위 지역이 적합하고, 이후 가거지로서의 조건은 굴바위 지역이 적합하다. 따라서 처음 변산을 십승지로 거론했을 때는 피난처로서의

조건이 우수한 울금바위 지역을 변산 십승지로 상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십승지의 시대에 따른 의미변화와 그에 따른 자연조건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위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전북 부안 변산 십승지의 위치를 추정해 보았다. 변산 십승지 추정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십승지는 지리적으로는 동천복지형(洞天福地型)에 속하며, 사상적으로는 풍수도참류의 한국적 이상향이다. 다양한 비결류에서 제시된 십승지는 16곳이며, 같은 장소이지만 시대에 따라 피난처, 가거지, 은거지, 경승지로서 장소적 의미가 변해 왔다.

둘째, 변산 지역에서 십승지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넓게는 내변산 전체 지역과 구체적으로는 내변산 지역 중에서도 변산면 중계리 중계 계곡, 상서면 청림리 회양 계곡 그리고 내변산의 동쪽에 위치하는 상서면 감교리의 울금바위, 보안면 우동리의 굴바위 등 4군데로 좁힐 수 있다.

셋째, 피장처의 조건으로 산지로 둘러싸인 지형조건, 국가의 주요 교통로에서 벗어난 지역을 조건으로 살펴보았을 때, 4곳 모두 피장처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 중 내변산에 위치하는 중계리의 중계 계곡과 청림리의 회양 계곡이 피장처와 은거지로서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가거지의 조건으로 농업용수로 활용될 수 있는 하천과 농사가 가능한 평탄지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4곳 중에서 우동리의 우동마을이 가장 우수하고, 다음은 청림리의 청림마을과 노적마을로 판단된다.

다섯째, 경승지로서 가장 우수한 곳은 중계리의 봉래구곡 지역이지만, 모든 지역에서 10리 내에 접근 가능한 범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4곳 모두 경승지의 조건은 모두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비결류에 나타나는 변산 십승지의 자연조건으로 호암, 굴, 변산의 동쪽, 탐라와의 관계가 제시되고 있다. 무풍과 운봉 십승지는 위치 설명에서 마을명과 산명이 등장하는데 비하여 변산 십승지는 자연조건과 위

치조건만 제시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변산 십승지에 관해 제시된 조건만을 고려했을 때 4곳의 가능한 지역 중에서 상서면 감교리의 울금바위와 보안면 우동리의 굴바위가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자연조건만을 고려했을 때는 내변산에 속하는 변산면 중계리(봉래구곡)와 상서면 청림리가 적합하다. 그러나 비결류에서 제시한 변산 십승지의 조건에 맞는 곳은 상서면 감교리의 울금바위와 보안면 우동리의 굴바위 지역이다. 두 지역 중에서 피난처와 은거지로는 울금바위가 더 적합하고, 가거지로서는 우동리가 더 적합하다. 그러나 처음 변산이 십승지로 거론되었을 때는 가거지 보다는 피난처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상서면 감교리의 울금바위 지역이 초기에 십승지 변산으로 거론되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강성연·김승기·박종민 1991, “변산반도의 산림에 관한 역사적 고찰” 농업생명과학연구, 22, 173-181.

고의장, 2003,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에 대한 지형학적 특성” 지리학연구, 37(3), 295-305.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2019, 「변산반도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권선정, 2018, “풍수적 장소의 사회적 구성 -속리산 ‘우복동’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3(6), 917-930.

김경미, 2018, “조선 후기 변산반도 유람로의 관광학적 고찰 -소송구 유봉래산일기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3(1), 1-26.

김승대, 2018, “지역학으로서의 반계학 연구 -전북지역 반계학 연구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60, 1-30.

김용주, 1923, 「정감록(鄭鑑錄)」, 한성도서주식회사.

백운향, 1986, 「정감록(鄭鑑錄)」, 일광사.

양승목, 2016, “조선 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방향” 한국한문학연구, 63, 97-133.

유귀영, 2017, “고전소설 속 도적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어문론총, 73, 89-112.

유재영, 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민음사.

이종범, 2013, “18세기 초 민중의 동향과 변산군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권」, 탐구당, 176-188.

이중환, 1751, 『擇里志』(이익성 역, 2002, 「택리지, 을유문화사).

일연, 「三國遺事」(이민수 역, 1985,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전경목, 2015, “부안김씨의 우반동 이거(移去)와 귀환(歸還),” 고문서연구, 47, 185-214.

정성훈, 2015,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타난 공간 양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49, 63-93.

정치영, 2005, “조선시대 유토피아의 양상과 그 지리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17(1), 66-83.

조성욱, 2007, “사회적 영향에 의한 지명 변화의 원인과 과정 -전북 진안군 지명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5), 526-542.

최원석, 2009,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 -청학동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4(6), 745-760.

최원석, 2010, “장소 정체성의 사회적 재구성 : 지리산 청학동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문화역사지리, 22(1), 130-145.

최원석, 2014,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한길사.

한국자연공원협회, 1997, “변산의 유적지와 전설” 한국자연공원 67, 52-64.

허남진, 2017, “한국 신종교 성지의 양상과 특징,” 한국종교, 42, 173-201.

국립지리원, 2015, 「1:25,000 지형도」(도엽: 심포, 만경, 비응도, 마포, 부안, 용계, 격포, 석포, 줄포).

국립지리원, 2015, 「1:50,000 지형도」(도엽: 부안, 위도).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십승지,”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십승지&ridx=0&tot=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감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정감록&ridx=0&tot=5>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설거사와 묘화부인,”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교신 : 조성욱,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chossww@jbnu.ac.kr)

Correspondence : Sungwook Cho, 5489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

투고접수일: 2020년 7월 24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8일

